宮三面土地事件 東京서訴訟提起

기타척식국등여러곳에는 진정서까지제출하엿다고

被告는東拓、原告는面民

전남나주궁삼면(羅州宮三面)에 거주하는 농민의대표라는 리화춘(李和春) 김평원(金平原) 라재긔(羅在基) 박승효(朴勝孝) 등네명은 작년세말에 일본동경에건너가서 이미 동양척식회사(東拓)에탈취당한권리 궁삼면에잇는던답사만오천두락을 목뎍으로최근에척식국(拓殖局)에와기타관계방면에 진정서를데출하고한편으로민사소송을데긔한다는데 그들소송한바를드르면궁삼면의토디사만오천두락은 지난명치이십일년 즉무자년(戊子年) 흉년으로말미암아동토디의 소유권을 가진사람들은먹을길이업서각처로 유리하고 말엇슴으로동토디의소유자가업게되엿든것을 긔화로 소위

합리뎍 방법으로 회수할

구한국(舊韓國)의국척들이던 엄(嚴) 민(閔)의일족이 경선궁(慶善宮)장토를맨들기로 하야세금을 대신으로납부하겟다고횡령을하여 가지고 여러파의관료들이 피차쟁탈전을 하는동안에 동토디는 민유디도아니고국유디도 아닌것으로 되여버리자마츰 일한이합병되고 동양척식회사가 손을내여 미러면민들이동토디는 민유디라고 고창함을 무리히 압도하고모모의관료들에게

팔만원

을지불하고이래동양척식회사의 소유로 한드럿슬뿐아니라 그중에도 혹독한소작료를 착취함으로 동면민들은동토디의 소유권을 회수코저한다는것이 권리소송의 대개의내용이라더라(동경뎐보)

新募職工도歸家

광주라주등디에서모집한 새직공들도모다도라갓다

木浦製油工罷業續報

긔보=목포제유공 파업단(木浦製油工罷業團)은 지구전(持久戰)에일으러 점점뎍으로싸온다함은 이미두보한바어니와 동회사측에서는 이파업이 장구치못할것을알고 그파업단원에게 머하야우는

아이에게 떡주어달래듯

『십전을올려주마 너희는어서 사죄하고 들어오면해고처분(解雇處分)한것을철회(撤回)하겟다』는수작으로 달내여왓스나 동파업단은 더욱분개하야 한사람도 들어가는사람이 업다하며 목포에사는 일반로동자들도 이에공명(共鳴)하야『어느로동자든지 이번파업을긔회로새로직공모집에응하는자가잇스면박멸하겟다』는류언(流言)까지잇슴으로 가는곳마다 에잇고가튼환경(環境)에 잇는로동자로서왜달음이잇는사람은 아모도새직공모집에 응하는사람이 업슴으로 회사측의손해

업슴으로

가만히나는것은 물론이오 각처에서 권금주문을바든것이 적지아니하야 엇절수업시 광주라주(光州羅州) 방면에서 새직공삼십여명을 모집하야 지난일일오전에 목포에도착하엿는데 경관대(警官隊)의 호위(護衛)하는속에서 새직공들은 제유공장으로갓섯스나 그들도량심에 자극을바다 그이튼날아츰에 공장의뒷문을트고

도망하야

목포발오후렬차로 삼십여명의 새직공들은 각각자긔의 집으로 도라갓는바 이것을알은 파업단은 목포역에달려가서 서로악수하고 잘도 다가시요 잘차우시오하는등의 인사로 고별하엿다하며 뎡거장은 한때혼잡을일우엇스며 파업단백여명은 발차시간을마추어『로동가』로전송하며만세소리로 헤여젓다는데 파업직공측의 성공이되리라고 일반은관측한다더라(목포)

東大門婦人病院 看護婦盟休解決

간호원장라더서를해고하야 분규중에잇던문데는해결돼

지난이십륙일 동대문부인병원(東大門婦人病院) 간호부(看護婦)홍선희(洪善喜)양의 자살을 동긔로동맹원 간호부학생일동이 간호원장(員長)『라더서』를 갈어달라고 동병원에 데출하엿스나 병원에서는 승락치 안음으로 학생일동은 동맹휴학을 하야형세가 매우불온하던바 간호원장이 휴업상태에잇슴으로 무사히 해결되엿다더라

社交協會에서 特別會員募集

희망자에게만ㄴ하고 광고의장은무료

긔보한바와가티 경성내 비신문사 광고부원으로조직된 사교협회(社交協會)에서일반상업가와 속히 친밀히할긔관을 만들기위하야 일반상업가로서 희망이잇는이에한하야 특별회원(特別會員)의자격으로 입회를허가하고 그회원에 한하야는 종래로광고의장료(廣告意匠料)를받든것을 전부 무료의장을 만들어제공하기로하엿는바 의장술이바약하던 재래로 광고에대하야 장차큰발전이 되리라고하며 일반상업가로서도 광고술의 연구라든지 즉접자긔의 리해라든지 하여간여러가지 리익으로보아 다수히 입회함이 조켓다고한다더라

三重縣事件 檢束者

조선인삽칠명 일인이삽이명

루보=일본삼중현사건 (三重縣……

技競動運

日本蹴球團이 朝鮮遠征計劃 來四月中實現乎

日本아式蹴球界의强軍인大阪사카俱樂部에서는來四月中에朝鮮에遠征을뜻을當地體協側에交涉왓슴으로同會에서는方今朝鮮蹴球團과協議後곳期日其他詳細를決定할터이라는데이것이實現되는때는처번培材가日本에遠征간것을비롯하야日本서蹴球遠征오는것도처음일이더라

米國카大學野球 七月에日本遠征할터

米國『캘리포니아』大學野球團은來七月中에日本에遠征할터이라는데그途中에『하와이』에上陸하야布哇팀과도競技를行하기로決定되얏더라.(호놀눌루發電)

日水泳選手招聘

布哇運動協會에서는日本水泳選手高石•上田•佐竹•杉田•四名을『호놀눌루』에招聘하라고交涉中인바이것이實現되면右四選手는日本選手代表로今秋互港選手와妙技를다룰터이더라(호놀눌루發電)

光化門郵局橫領犯

평양방면으로도망간듯하야 종로경찰서원이평양방면에

시내광화문우편국(光化門郵便局)공금횡령범 내미용(乃美勇)의자취는 지금까지 오리무중에잠겨 그행방 도모지알수업는터이나 소관종로서원은 긔어코이범인을 데포하고자 활동을 계속하는터인바 이에 이르러 내미용은 범행후미구에 그몸을교묘히 변장하야경성을버서나 평양(平壤)방면으로갓다는 유력한증거를어더가지고 일일밤차로 동서형사김(金)우생(羽生)의 두명을 역시변장시키어 평양방면에급거출장시키엇다는데 출장한량인은 지금까지도라오지 안코그곳경찰서원의 응원을어더 활동을계속중인모양이 나아죽까지광명을어들만한 통지는 업는모양이더라

朴永德氏被捉

평양서로호송

삼일운동에 만흔노력이잇든 평남강서군 증산면 취룡리 (平南……

立春大吉

반시열후오일사

興業債券으로 六十圓을騙取

경찰서에서는 범인을엄탐중

수원군안룡면평리 (水原郡安龍……

箕城俱樂部가 긔성학생회로

일본동경에 류학하는 평양(平壤)학생들의모힘이든 긔성구락부 (箕城俱樂部)에서는 지난일월삼십일에 총회를열고 규약개정과 졸업생송별식을 거행하엿다는데명칭도 긔성학생회(箕城學生會)로개칭하고 임원은다음과가티 개선하엿다더라

▲金洸鎬▲金鳳集▲鄭光鉉▲李仁善▲洪燁甸

氷上에서遊戲中 學生三名慘死

동모한명이물속에빠지니 다른두명이구하려다또빠저

지난 일월이십구일 오후네시경에 례산군오가공립보통학교(禮山郡吾可公立普通學校) 생도세명이학교에서 하학하고 자긔집에도라가는길가에서 일시 무참히죽엇다는데 자세한내용을 드른즉 례산군 삽교면두리(禮山郡揷橋面頭里)에살며 현재례산군오가공립 보통학교 삼학년인리근만(李根萬)(一六)과 동삼학년리웅준(李雄濬)과 동교 일학년생조해룡(曹海龍)(一一)등세학생은 매일한학교에 다니며학생의리도 매우칭찬을 밧던 생도인데 동일에 하학하고 집에도라 가는길가에인 례산군 오가면좌방리 방죽(禮山郡吾可面佐方里堤堰)에서 어름을지치는중에리근만이가먼저어름을지치다가 돌연히 어름이 문허지매몰속으로드러가는것을본 리웅준 이가또차드러가서 권괴 리근만을구하고자 하다가역시 어름이또문허저서 가티물속으로 드러가게된바 권괴어린학생 조해룡은 그두학생이 물속으로 드러감을보고 응급수단으로 또차드러가서 그두학생의팔을 붓잡자또어름이 문허저서 물속으로드러가버렷는데권괴조해룡의누이인조순이(曹順伊)(一三)이가이거동을보고곳소리를질느며자긔집에가서학생의부친인조영국(曹榮國)(四四)을보고 이와가티급한것을한결과권괴조영국은곳그곳에와서 삽교주재소순사의 응원을어ㄷ가지고 응급히 구호하고저하엿스나 필경은 권괴세학생이다무참히 이세상을 떠나게되엿는바 권괴조영국은 자긔아들인조해룡을 집으로업고가 급히 의사를불러 치료를한결과그날밤열두시경에 회생의 희망이

晉州寺奉殺人事件

유력한혐의자를데포

진주군사봉면(晉州郡寺奉面)에서는 살인사건으로 목하소란중에잇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지난삼십일에진주경찰서원과동면주재소의 철소활동으로 유력한혐의자두명을 데포하엿다는데 그들은동면무촌리(同面武村里)김대임(金大任)이라하는자와 진……

失家兒趙炳玉

안해파러먹고 리혼소송마자

富豪의書記가 大金을橫領逃走

금액은오천구백원인데 피해자는대구부호서우순씨

電氣盜用하고 경찰에붓잡혀

우리少年主催의 新春音樂大會

오는오일밤에

騷然無雙한世相의一面

昨曉新橋洞에怪賊

婦女脅迫하고金品奪取

주인녀자를위협하고 금반지두개를탈취후에도망

犯人逮捕코저鐘路署活動

拳銃盜失

서대문서원이 각처로대활동

洋靴專門窃盜

또다시검사국에

安城三竹面 拳銃强盜

시국을표방하고 구십여원을강탈

新堂里에强盜出現

두명이침입하야협박을하고 금품을다수히빼아슨후도주

이일오후여덜시반경에경성광희문(光熙門)밧신당리(新堂里)리규필(李圭弼)의집에두명의강도가드러가서 현금과 의복을강탈도주하엿는데 피해자는 삼일아츰에야 서사현뎡파출소에 강도마진사실을 고발하야 소관동대문서에서는 범인을 데포코저방금활동중이라더라

大膽한少年窃盜

생도로변장하고 물건을편취햇다

鷄賊被捉

작년구월이후로 륙백여수를훔처

木浦에火災

사호를소실

船人三名溺死

出漁中大風雪로

이백여척어선이 일시에자방으로흐터젓다가

其他行方不明者多數

함남리원군 남면차호리(咸南利原郡南面遮湖里)압바다에서는지난삼십일오후한시경에 어부세사람이참사하엿다는데그자세한내용을 드른즉 명태어선(明太漁船)이백여척이명해를잡으러 바다에나갓든바 그때는눈이조금식나리다가오전여덜시부터 큰풍랑이일기시작하야 모든어선은산지사방으로바람에불려다니다가 겨우항내에들어오게 되엿스나그중배에탓던차호리(遮湖下里)김영석(金永錫)(三五)과김의형(姜錫英)……

瓮津에凶器强盜

세명이새벽에침입하야 현금삼천원을강탈도주

仁川府民大憤慨

신용조합임치금문데로

白書記白放

河豚쓰려먹고 四名이半身不遂

멱칠을굶고먹을것이업서 복생선쓰려먹고반신불수

……는바 다행히 리주영의안해와 아들들은데일적게먹엇든관계로이참경은면하엿다더라

晉州花柳界에 斷髮妓生流行

단발이한류행이되어 며며기생의단발로

진주에서는 지난번에양옥뎡(梁玉貞) 이란기생이 단발하엿는데

今年度 各學校 入學紹介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募集定員• 二十名

◇入學資格• 滿十七歲以上의男子로
一、中學校卒業者
一、高等普通學校卒業者
一、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에依한試驗檢定에合格한者

◇試驗科目• 日語 漢文 英語 數學(算術 代數 幾何) 博物學(動物 植物 鑛物) 物理學 化學

◇試驗程度• 中學校及高等普通學校卒業程度

◇試驗場所• 세부란쓰醫學專門學校 (京城南大門通五丁目)

◇試驗期日• 三月二十五日로부터三日間每日午前九時부터

◇出願手續• 入學志願者는入學願書에履歷書 誓約書 學業證明書 戶籍謄本及寫眞을添付하야試驗料三圓과함께三月十日까지이를提出할일

◇其他注意• 入學願書를提出한者는三月二十四日午前十時에該校에集合하야受驗時間其他에關한注意를들을일

詳細는直接該校로問議함이可함

京城醫學專門學校

◇募集定員• 八十名

◇入學資格•
一、滿十七歲以上의男子로中學校를卒業한者
二、新教育令에依한高等普通校卒業者
三、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에依한試驗檢定에合格한者
四、朝鮮總督이一般專門校入學에關하야中學校卒業者와同等以上의學力이잇다고指定한者

◇試驗科目• 日語 漢文 數學 博物學(動物 植物) 物理學 化學 外國語(英、佛、獨語中任意)

◇試驗程度• 中學校卒業程度

◇試驗場所• 京城醫學專門學校

◇試驗期日• 三月二十六日(金)로부터三日間每日午前九時부터

◇出願手續• 入學志願者는入學願書에履歷書 學校長卒業證明書 又는檢定試驗合格證明書에戶籍謄本과寫眞及受驗料五圓을添付하야二月末日까지提出할일

◇其他注意• 詳細는直接該校로問議함이可함

종명자

▲디방경관들의몰상식한것은인제아는것은아니나요전에충남론산(論山)서는신문긔자의『마-크』를보고『공산당원』의『마-크』라고 공문이를ㅡ크』라고 하드라고▲그랑반이야 말로『레닌』이 누구냐면셩일음이라고 혈친고야!▲일본서는소학교훈도가유곽에또처다니며 귀찬케 하드라고▲가서창기의돈을강탈하려다가경찰서구경을햇다 한다▲남의집어린애 왜버려주엇겟군!▲충청도엇던 디방경관들은 혐일이업스니와 척사대회를 도박이라고 금지하엿다고 ▲그들의 생각은보통사람과달은게야▲달수가모자라는게지?

各團體消息

◇光活靑年緊急總會 부내청엽뎡(靑葉町)에잇는광활청년회에서는이월오일 『매일신보』에부정긔사가 잇다하야 그긔사에대한대책을 강구하기위하야 긴급림시총회를개최한다고

◇新民二月號押收 월간잡지 신민(新民) 이월호는검렬당국에서 압수처분(押收處分)을 하엿다더라

가뎡평론

고통의가뎡생활과 깃븜의가뎡생활 【二】

完山人

◇일전신문에 한비참한 사실이 보도되엇스니 이것은농촌에서 내외가 어린아동을다리고 남의소작마직이나 지어근근히 생활을유지하다가불의에소작이떠러지게되매생활하여갈 계획이 막연한까닭에할수업시 그안해를 리혼하게되엇다하며 그리혼한 리유는아모생활의 능력이업는 남편만 밋다가는 필경 세식구가다가티 굶어죽을터이니 차라리 사랑하는 안해를 리혼하며 달리다른사람의 구호라도밧도록 하게합니다 합니다

◇생활을 할수업다하야 리혼을 하는것을 물론찬성할수는업습니다 굶으나먹으나 모든것을 가티하는것이 인정답다고 누구든지 생각하겟습니다 이러한의미에서보면 그러한리혼은 비겁하고 인정답지못한것이라 하겟습니다 그러나우리는 이러케 사회뎍으로나타난 이사실에서 이세상의 곤궁이라는것이 엇더케몹시 우리의생활의 깃븜을쌔트리는지 알수가잇습니다 만일그네들에게 물질의위협이란것이 업다하면 가뎡생활이얼마나그들로하야금그곳에안식(安息)케하엿겟슴닛가

◇이러한 비참한사실이 엇지이것에만한하야잇겟슴닛가 이것은다만 신문지상으로 나타난것과 또는 그가뎡생활을 파괴한동긔가어느커주(呪咀)와원차(怨嗟)에서나온것이아니오 서로의행복을 빈다는의미에서 나왓다는것이 다른뎜이라하면 다른뎜이라고 할수잇스나 미더게는가뎡생활의행복이 물질로 인연하야 파괴되는것을 말함인가 합니다

◇그럼으로 현대에 잇서서 비롱이란것이 악마처럼 의연히잇는이상에는우리네의가뎡생활이란 비록 그형해(形骸)는보전할지라도그실질에드러가서는 참으로 깁븐가뎡생활이란보전할수업슬것임니다결국은 소수의 물질의은택을바든자라야만 깃븜의 가뎡생활을 누릴수잇고 다대수로는사방으로 유리하게 되거나그러치안코 엇더케든지 가뎡을유지하라하면 고통뿐 일것임니다 이러한결과는 엇더케되겟슴닛가 그럼으로 서양사람들은 생활을 유지할동도가아니면 가뎡을 지닐계획조차세우지안는다 합니다 우리조선의 생활능력이업는 어린이들의 가뎡이야말로 정신뎍으로나 물실뎍으로나 그장래가엇더케될가 참으로 걱정스러운일이가함니다(쯧)

미인찬 (2)

류학시대부터 미인의평판잇는 강숙렬녀사

◇……남편을도으며가뎡생활에골몰!

강숙렬(姜淑烈)(三一)씨라는녀자는 [illegible] 면 옥가티 흰얼골에 [illegible] 령리한 눈에는누구든 [illegible] 도니 누가그를 동양 [illegible] 라는탄사를 드리엇담 [illegible] 는 함경도 리원(利原) [illegible] 동경일본녀자음악 학 [illegible] 아노와성악(聲樂)을 [illegible] 공부하다가 삼년전에 본국에도라와서조선일류 [illegible] 김괴진(金 [illegible] 어린아기를 가슴에안고 정다운 우슴을띄우며

「나는나히가어려서 그런지아즉 가뎡취미나 어린아기의귀여움을 그다지늣겨지지 안어요 그리고 동경에류학할때가 그리웁듸다 압흐로음악을 다시계속하고십흔생각이잇는데뜻대로될는지요」하고 말합듸다

◇……강숙렬녀사……◇

◇「뉴욕」시의「볼스타」집에는자녀가열다섯이나이러캐잇답니다

육류와 채소

어느것이몸에더조흔가

◇테질과경우를따라달라◇

[illegible] 사람이잇스나육식을하야자긔몸에생리상에효력이잇고업슬것은자긔의경우데질위장의상태운동의다소,기후의유무와 큰관계가 잇슴을 번커쌔닷지 아니하면안되겟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채소와 육류의분량을 적당히정하여야할것이며결단코과육(過肉)의해롭입지 안토록 조심하여야하겟습니다 그럼으로 사람은누구던지 각각자긔신톄의 관리자가되야자긔몸솜스사로헤아려살펴가지고음식에도될조잇고유익하게 섭취하기를 힘슬것이요사람의몸에는 나물보다 고기가더유익하다는등 고기보다 생선이더유익하다는등하며 자긔데질에 맛지도안는음식을 취하는것은 도로혀 큰해를입는것인줄밧어야하겟습니다

멍텅구리 세계일주 (3)

평양도착

(一) 대동강반에 푸로펠라를 쉬니

여보게 돌돌이와가에 좀내려주게

발서 다왓네

(二) 기생한떼가 에워차서 헤날수가업다

너희들중에 데일입분 기생은 아저씨를 무르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三) 발서돈을다ㅣ 업새이고는

이것큰일낫네 평양서좀더돈을쓰고가야 한터인데 피차전한푼업는걸

구경이나 다니지 돈은왜 쓰나

(四) 비행긔를 잡히라다가 거절당해

여보 비행기를잡고 돈오백원만주

비행기를누가 잡는단말이요

典當舖

의상

늑막염치료법

[문] 본인이 작년춘간에 늑막염(肋膜炎)이 발생하야 빈곤한중에도 어느병원에 입원치료하느라고 가산즙물꺼지 다팔게되엿섯습니다 일개월 만에퇴원하엿서도 근치는 되지안코 또재발되엇스니 경비문제로의사에게치료바들수도업고매약(賣藥)이나 단방약(單方藥)으로 치료할가합니다 상당한효험을어들약이 업겟슴닛가(一呻吟生)

[답] 늑막염은 원래 재발하기쉬운병이라 치료를 아모리금전을만히허비하여도 재발하기쉽습니다 매약에는 상당한것이업고 산리시아산조달(撒里矢兒酸曹達)을 한번에두픈오리(二分五厘)중식을하로에세차례를 식후에먹되 이약을너무먹으면 소화불량증이 이러나기쉬우니 주의하야 위산(胃散)을 병용하는것이 조흡니다 늑막의압흔편에는 더운물로 찜질을하면 조흡니다 (本社囑托醫 金溶琛)

解散된一心會員 同友會를組織

선언강령도다시발표

긔보한바 일심회정긔총회(一心會定期總會)는 지난일월니십오일에 평양병긔제조소(平壤兵器製造所)에서 열리엿든바 동회의 강령(綱領)과 규약(規約)이 불온하다는 경찰 당국의주목이 심한 고로 동소소장이해산을 권유하되 일심회회원(一心會會員)은 본공장에서복역할수업다함으로 부득이 해산되엿든바 해산을 당한일반회원들은 사상교환할긔관이 업슴을 애석하게역이든중 동회원들은 지난삼십일에 또다시 병긔제조소식당에회합하야 토의한결과 동우회(同友會)로고처 조직하고 위원(委員)선거와선언강령도다시발표하얏다더라(평양)

◇委員 ▲委員長 李東烈 ▲委員 金石仁 洪貞權 李浩景 金永植

新興藝術의理論的根據를論하야廉想涉君의無知를駁함 (二)

朴英熙

(三) 個性問題와藝術에나타난個性

이에서 우리는上述한藝術上의二大分派가잇슴을 알엇거니와 그러면 이러케分派된藝術이 무엇을原因하여가지고 이와가튼結果를맷게되엿는가를생각하여보자!

『藝術을爲한藝術』과 『人生을爲한藝術』을 쉬웁게말하면 前者는官能享樂만을爲해서創造한藝術이오 後者는人生生活의積極的過程에서 理想的眞理를爲한것이니 한아는美의享樂의效果를 個人個人이內在的으로서滿足하게되며 한아는그效果가表出的으로生存過程의 積極的理想을啓示하는것이니 前者는個人的이오 後者는集團的或은社會的인것을알엇슬것이다

이에個人享樂인『藝術을爲한藝術』과集團或은社會를爲한『人生을爲한藝術』이 그어느것에價値가잇고또그藝術의本質的價値가잇는가를알어보아야할것이다

勿論 畸形的으로發達한個人的享樂을禮讚하는者는 『藝術을爲한藝術』로써 藝術의價値를云謂할것이며 또한社會的價値를要求하는者는『人生을爲한藝術』을禮讚할것이다 그러나 그러케 藝術의本質的價値를찻지못하고 藝術的價値를따와場所를따러서 僞造하게되여서는 아니된나 다만 藝術的價値는社會的으로그機能을갓게될때에만 그本質的價値를發揮할수잇는것이다 個人問題는 이社會的價値에서비롯되지안는다면아니된다 그것은 個人的享樂은社會的으로影響을주지못하나 社會的價値는個人生活의向上에한條件이될수잇는것이다

그러함으로써 或者는뭇기를 『그러면 藝術에는 個性問題가업느냐』?고할것이다 그러나 個性問題가업는것은아니다 다만 個性問題를取扱하는方法이다르니 個人이個性의享樂만爲해야 創造하는藝術의個性的價値와 個性이社會的洞察力을가지고서 그個性의創作的努力의影響이社會的으로波及되는社會的價値가다르다는말이니 前者는沈滯的이오 消極的이며 後者는進化的이며 積極的이다 또다시 이케物理學的으로例證하여서보면 個性은 푸리슴과恰似하니 光의集團的價値를가진太陽의光線은 이푸리슴을通해서 그光線을完全히分析하여볼수잇는것이다 이케이光의社會的價値를含有한太陽은個性的인 푸리슴으로써 完全히그太陽의七色의現狀을遺憾업시發揮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萬一 그푸리슴이 七色의光線을完全히分析하지못할때에는 그푸리슴은個性的價値를喪失하엿슬뿐만아니라 實驗上오히려우리에게 非眞理의五色或은四色의光線을 眞理인체하고내여노흘것이니 그러한푸리슴은 研究生의손에 慘酷한破壞를當하든지 或은아이들의遊戲品밧게는所用업는것이되고만다 그것은必然的事實이다 더確實한例를들면 藝術의社會的機能을몰으는廉君의個性가튼것이다 그의個性은五色이나四色밧게는傳達하지못한다 그外닭은 그는資本主義社會의現狀만을알고社會主義社會의理論과現狀을모르는外닭이다 그個性은 어느아이들의작란감이 될는지! 말은좀 岐路로나갓다 그럼으로 내가말하려는個性은上述한바와가티 그個性의享樂을일삼은個性을말하렴이아니고 그個性이社會的機能을表現할수잇는것을말하려한다。

學藝

釋迦牟尼와그의後繼者 【三】

哲學博士 白性郁

以上事實即『실달타』太子의 이약이즉 東洋에서는勿論佛教에依하야 알게되엿지마는歐洲에이즉누카『누가』福音(Lukas Evangilium) 中에 누카가만흔聖神感觸人(Sanctus spiritus, sancta Persona)들을 이약이하는 中에 요사팔 (Josa phat)이잇나니그는王太子로富貴를바리고 山中에서 工夫한等을이약이하엿다 그래行蹟은 쇄기야문이와 달을것이업지마는일음요사팔에對하야 證據를엇고저한結果 東洋學者에依하야보디살바의訛傳인것이 分明하게되엿다 보디살바(菩提薩埵譯智人)는太子가出家하기前에冠하엿던佛教的尊稱이엿나 이루카의이약이가歐洲에서한참盛行한때는中世紀이엿다現今에도基督教徒치고는누가福音을몰으는이가업슬줄밋는다

四

初年教育이 아즉終을告하기前에 어린太子는발서 當時制度를研究하노라고 苦心하엿스며 直接視察을 行한적이만혓다 例하면 八相錄中에四門遊觀相가튼것은 이것이다 이와가티重大한問題를 研究하게된太子이라 勿論小小한 選인王位에뜻이업섯든것은 그의明哲한觀察은 그가解決하고저하는問題가 政治的으로解決할수업슴을 看破한것도非實이다 그런즉他一面에서 오즉獨子를가진『수도다나』王의 悲哀로된落心이요 一고저하는苦心은 度를加함에마다 그가研究에 더욱熱中하게되는것은 正比例가된것이다 그래歡樂을가지엿든『수도다나』王宮은 愁心이萬重인恐怖로變하고말엇다 그럼으로太子를爲하야 宮殿을三座나 建築하고『야수다라』를擇하야 太子로成婚케하고 五百의歌女와 五百의舞女와 美色의佳人들로 太子를侍하게하며 學樂을廢하는同時에 放蕩으로 太子를引導하고 一邊으로는宮禁을嚴히하야 門의開閉를一定한時로하야 遠近이아도록 하게만들엇다는것도 實狀이時期에업지못할一端이다。

이것이 理由이엿든지 或은 그의가진知識으로는 겨우缺點을研究하게되엿스나 이것을改革하고저하면 무엇보다 新宇宙觀이나 新人生觀이必要할것이고 이것을하고저함으로는先覺의訪問도必要하고 또는單獨修行도必要하겟는데 宮殿에잇는것이 不適當하겟다생각하엿던지 父母의親과(少婦)의愛와國土의富와 王位의 貴를바리고 突然이宮禁의無備를틈타서『히마라야』山麓인 當時學者들의修業地로 隱身할때는 夜半이라全城住民과 宮殿侍衛는 甘夢에醉하엿고 春氣의 和暢으로 피여오르는樹林은 이슬을먹어愴然한빗으로 太子의最後를祝福하는外에 太子自身인즉 宿戰에所願을成就함으로는 이瞬間에 快感이업지못하엿겟지만은 그도사람인以上에야 老父와愛妻의 無依함을두고떠날때에 엇지傷心이업섯스랴! 이것을斷行한 太子의나히는十九歲이니 人生中煩悶振高의年歲이엿든것도 奇蹟이아니라할수업다 그는後日에此時를指하야『降樂』하든時라하 . 또말하기를 그의修養期에잇서서 오즉『降苦』와『降樂』두가지가難行이드라고 自白한것을보면 彼當時에잇서서 그의苦心이 얼마나甚하엿든것을 짐작할수잇다。

新刊紹介

◇新民 二月號 如是我觀朝鮮將來、言論界의過去와、現在朝鮮이가질文學其他論文、文藝等多載 發行所京城茶屋町五五新民社定價五十錢振替京城一六七〇番

熱風 【二】

中西伊之助作 李益相譯 盧心汕畫

『커는이요 당신하시는 말슴이면 무엇이던지 들을터이에요 꼭들을 터이에요 말슴하여주세요 네?「사치야」씨는「캘커타ー」의대학에서 학문을 배우시지 아니하셧세요? 그러치만 저가튼사람은 이런시골구석에 처박혀서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장이 녀자요……』

하고「안늬ー」는 원망하는듯 그러한가운데에도아양을가득히먹음은눈으로「사치야」의얼골을 물그럼이 바라보다

『오! 「안늬ー」그대는 나의하는말을 꼭잘드려주겟소 참으로 꼭잘드려주겟지오 틀림업시……?』

이러케 말을하고 「사치야」는 픽으나 깃분드시「안늬ー」의몸을 쌕쎄어안엇다

『인도는ー 인도사람의혼에는 「안늬ー」! 지금밤이 밝어오기시작한줄을 아시는가요?』

『아이구! 밤이밝어오다니요?』

「안늬ー」는 밤이밝어온다는것이 무슨뜻인지 모르는것처럼이상스러운드시「사치야」의얼골을치어다본다

『아 그럿슴니다「안늬ー」! 인도사람의 영혼에는 지금날이새기시작한다는 말이야요……』

『그러치만……그러치만……』 하고는「안늬ー」는 사면을 한번휘휘 둘러보더니

『그러치만요 지금은 한밤중이아니예요? 밤도인제야 아홉시밧게 아니되엇는걸인데요 앗가에야 막해가 지지아니하엿나요?』

『하하……하』

「사치야」는 박속처럼 흰니빨을내노코우섯다

『「안늬ー」는 참으로아무철모르는 어린이구려ー나는 밤이니는 낫이니하는 그런말을 말한것이아니람니다 알으시겟지요 내가밤이라고말한것은 인도의 태양광선을 표준한주야(晝夜)를 말한것이 아닌것을……내가 말한의미는 다른것이아니다 인도사람의정신에 새벽이 왓다는말이야요 인제는아르시겟지요 그러치안슴닛가 인도사람의혼에 태양빗과 가튼빗이 비취여왓다는것이야요 아르시겟서요……』

『인도사람의 혼에 새벽이 와……?』

「안늬ー」는 머리를 기웃거리고 생각한다

『그래요 새벽이왓서요』

「사치야」는 힘잇게대답하얏다

『ー그게 머데엇더한의미인지 저는 잘모르겟서요』

『「안늬ー」는 아즉도 그런의미는 모르겟단말인가요?』

이러케재처무르며「사치야」는 자긔의 아모 철모르는 애인에게 빙그레웃는 얼골을 뵈엇다

『그래요 저는 아즉도 그뜻을 분명이 알수업는걸요웨 앗가부터 미리말슴하지 안하섯서요 저는「사치야」씨처럼 그러한 대학교에 가서공부도 하지못하엿다구…… 「사치야」씨는 저를성가스럽게굴어보시랴고 하시는 말슴이아니에요…… 그리지말고 아러듯도록 말슴을하여주서요!』

「안늬ー」의 눈에는 어느듯눈물이 핑 도랏다

『「안늬ー」는 나를 그러케납비 생각하여서는 안됨니다 그러케납나는 결단코 그대를 놀려보거나 시달려보랴고 한것은아니야요 나는 그러케납분사람으로 녁이시나요?』

조금전에「안늬ー」를휩싸 안엇든팔을 잠간노코잇던 「사치야」는「안늬ー」의 련진스럽고귀여운 눈물에저즌 눈을보고는문득어엽분 생각이다시나서 왈칵미친드시 대드러 그의보드러운몸뚱이를 쎄어안엇다 그리하야여러번이나 그의이마와 눈에입을함부로 마추엇다「안늬ー」의단눈물이「사치야」의 입술을적시엇다

◇……우미관 독자의 우대권은 [illegible]에……◇

◇天氣豫報 雪後晴
◇溫度 三日正午 三〇、二
◇比較 二日最低 一二、七
◇日出前七時三六分 畫間一〇時二四
◇日入後六時 ○夜間一三時三六
◇今日은 立春